

19세기 조선왕실 혼례용 백자의 구성과 특징*

최 경 화**

목 차

- I. 머리말
- II. 19세기 왕실의 유교식 혼례와 절차
 - 1. 왕비 (효현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
 - 2. 후궁 (경빈김씨)
 - 3. 공주 (덕온공주)
- III. 19세기 왕실 혼례 소용 백자 및 특징
 - 1. 혼례 소용 현전 백자
 - 2. 기록에 나타난 혼례 소용 백자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왕실 혼례는 대표적인 왕실 축제로 국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대한 왕실 혼례에 사용된 백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체계적 연구 없이 현전하는 몇몇 유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들 백자는 점각명으로 인해 언제, 누구의 혼례에 사용되었는지와 외면에 문양 그리고 기술적 특징(질·굽꺾음·굽 받침)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왕실 혼례용 백자에 대한 매우 단편적인 인식일 뿐 왕실 혼례용 백자를 예치(禮治)를 기반으로 한 조선왕실의 의례 가운데서 인식하고, 백자 기면에 나타난 문양·기술 이외의 다양한 사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시간강사 지원(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음(NRF-2019S1A5B5A07093952)

** 崔敬和,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florachoi1@naver.com
투고일: 2020. 10. 31. 심사완료일: 2020. 11. 21. 게재확정일: 2020. 12. 5.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9..41>

이를 위해 19세기 가례도감의궤를 분석한 결과 혼례용 백자의 사용 배경인 왕실 혼례의 절차가 유교 예에 입각하여 위계에 따라 차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기발기를 통해서도 혼례 소용 백자의 수량(규모)·종류·구성·명칭·문양·진상 체제·수량단위·크기분류 뿐 아니라 외래자기 사용 및 선호양상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왕실 혼례용 백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왕실 혼례용 백자는 조선왕실 의례용 백자의 한 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핵심어 | 19세기, 왕실 혼례, 혼례용 백자, 왕실 의례, 사기발기(砂器發記), 예치(禮治)

I. 머리말

왕실 혼례는 대표적인 왕실의 축제로 오례(五禮) 중 경사스러운 의례인 가례(嘉禮)에 속한다.¹⁾ 특히 왕이나 왕세자 혼례는 왕실의 가계를 잇고 어른을 모시며, 국왕의 외치를 도와 내치를 할 국모를 정하는 일로 국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같이 중대한 행사인 왕실 혼례에 사용된 백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이 현재까지도 몇몇 현전하는 유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백자는 기면에 ‘간지+행사+소용처+크기+수량’과 같은 점각명이 있어 언제, 누구의 혼례에 사용된 양질백자라는 사실과 함께 기면에 나타난 문양·명문·기술(질·굽깎음·굽받침) 특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왕실 혼례용 백자에 대한 매우 단편적인 인식

1) 五禮는 吉禮, 嘉禮, 凶禮, 賓禮, 軍禮를 의미한다. 가례에는 冠禮, 入學禮, 冊封, 賀禮 및 宴禮, 왕의 즉위식, 존호를 올리는 의식 등이 포함되나 협의로는 혼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왕실 혼례 전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미선, 『朝鮮時代 國婚儀禮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임민혁, 「조선시대 국왕 嘉禮의 절차와 규범」, 『東洋古典研究』 47, 2012; 장병인, 『조선 왕실의 혼례(婚禮)』, 민속원, 2017.

일 뿐 왕실 혼례용 백자를 예치(禮治)를 기반으로 한 조선왕실의 의례 가운데서 인식한다든지, 백자 기면에 나타난 문양·명문·기술 이외의 다양한 사실들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전 유물의 단편적인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19세기 왕실 혼례 관련 발기(發記)를²⁾ 확보하게 되어 왕실 혼례용 백자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에는 혼례에 소용된 그릇의 종류·명칭·수량·문양·진상체제·수량단위·크기분류 등을 비롯하여 외래자기 사용 및 선호 양상 등 내용이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왕실 혼례용 백자를 어느 정도 복원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왕실 혼례용 백자의 사용 배경을 II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인공의 위계에 따라 혼례 절차와 내용에 차등을 두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들 혼례 소용 백자가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전하는 혼례용 백자가 사용되었던 왕실 혼례의 절차를 왕비·후궁·공주로 구분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19세기 왕실 혼례에 사용된 백자와 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백자는 혼례에 사용 후 현전하는 실물 백자와 기록에 나타난 백자를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종합하여 왕실 혼례용 백자의 윤곽과 세부 사항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특별히 현전 백자는 자료를 새롭게 추가하고, 실견을 토대로 명문·문양·기술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일부 명문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록 자료인 발기는 현전 유물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시사해주어 19세기 왕실 혼례 소용 백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사기발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사실들은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19세기 도자사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2) 발기란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열거한 궁중 문서로 私家에서는 볼 수 없다. 한자로 ‘發記’, ‘撥記’ 등으로 쓰며, 이두식 차음으로는 ‘件記’로 표기한다.

것으로 생각된다.

Ⅱ. 19세기 왕실의 유교식 혼례와 절차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는 모두 왕실 혼례에 사용되었으나 소용되었던 배경이 동일하지 않다. 주인공의 위계에 따라 혼례 절차와 내용이 생략 및 간소화되었고,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백자가 사용되었다. 유교의 예에 입각하여 차등적 배경에서 혼례용 백자가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기 위해 왕실의 혼례와 절차를 주인공의 지위에 따라 왕비·후궁·공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19세기 왕실의 여러 혼례 가운데서도 왕비인 효현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 후궁인 경빈김씨, 공주인 덕은공주의 혼례절차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함은 이들 혼례에 소용되었던 백자가 현재까지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교식 혼례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분석에 앞서 왕실 혼례와 절차에 대한 대강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왕실 혼례의 기본 절차는 유교의 『의례(儀禮)』나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기초하며,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 정한 육례(六禮)에 의해 진행되었다. 혼례의 기본인 육례는 국왕이 혼인을 청하고 예물을 보내면 이를 맞이하고(납채(納采)), 성혼의 징표로 예물을 보내며(납징(納徵)), 혼인의 날짜를 정하여 알린다(고기(告期)). 이어 책봉 의식을(책비·빈(冊妃·嬪)) 행하고,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친영(親迎)) 궁으로 데리고 오면, 신랑 신부가 직접 대면하는 근대적 의미의 혼례식인 동퇴연(同牢宴)을 치렀다. 이렇듯 납채에서 책비까지가 대개 혼례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면 친영과 동퇴는 혼례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혼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납채 과정 이전에 신부를 뽑는 삼간택의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동퇴연 이후에도 왕대비나 대왕대비를 알현하는 조현례(朝見禮)와 종묘의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묘현례(廟見

禮)가 거행되었다. 특별히 삼간택 이후 신부는 자신의 본가로 가지 않고 별도로 조성된 별궁으로 가서 입궁 때까지 이곳에서 국모 수업을 받았다. 국혼 때 신부집 역할을 하는 별궁이 조성된 이유는 동퇴연을 제외한 다섯 가지 예식을 치르기에 신부 사가(私家)의 규모가 협소하고, 또한 친영시 왕·왕세자가 사가에 든다는 것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³⁾ 육례 절차 중 동퇴연을 제외한 다섯 가지 의식은 궁중과 별궁 두 곳에서 2중으로 거행되었다. 그 이유는 궁중에서는 왕명을 받고 떠나는 사자(使者)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오라는 위임식이 거행되는 한편 별궁에서는 봉명사자(奉命使者)가 가지고 온 교명(敎命)과 신물(信物)을 받드는 의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퇴연만큼은 신부의 입궁 후 궁중 한 곳에서만 치러졌다.⁴⁾ 그러면 다음의 절에서 왕실의 혼례 절차를 주인공의 위계에 따라 왕비·후궁·궁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왕비 (효현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

유물이 현전하는 19세기 왕비의 가례로는 효현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의 가례를 들 수 있다. 먼저 1837년 헌종(憲宗, 재위 1834~1849)의 첫 번째 왕비였던 효현왕후(孝顯王后, 1828~1843)의⁵⁾ 가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육례의 절차에 입각하여 거행되었다. 납채(3월 6일)에서 납정(3월 12일), 고기(3월 13일), 책비(3월 18일), 친영(3월 20일), 동퇴연(3월 20일 午時)까지 총 1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표 1). 물론 이에 앞서서는 초간택(2월 6일), 재간택

3)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 일지사, 1987, 229~231쪽. 참고로 19세기 왕실 혼례 중 현종~철종까지는 於義洞本宮을 별궁으로 사용하다가, 고종과 순종 때는 각각 운현궁과 안동별궁을 사용하였다.

4) 金用淑, 위의 책, 208쪽, 240쪽.

5) 영돈녕부사 영흥부원군 김조근의 딸이다.

(2월 18일), 삼간택(2월 26일)이 진행되었고, 동퇴연 이후 왕대비전(3월 21일)·대왕대비전(3월 22일) 조현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기와 책비 사이인 3월15일 동퇴연 기명을 내입하여 동퇴연을 준비하였다.⁶⁾ 보통 동퇴연 기명은 금·은·놋쇠로 만든 사발·접시·잔·잔대·병·향로·과기(果器)·우리(于里) 등을 비롯하여 왜주홍칠이나 흑칠 원반·주정(酒亭)·소반 등으로 자기는 청화백자 주해(靑畫白磁酒海)만 볼 수 있다.⁷⁾ 이러한 동퇴연 기명과 함께 피로연에 사용할 많은 자기들도 같이 내입되어 고간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844년 헌종은 후사 없이 죽은 효현왕후에 이어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1931~1904)와⁸⁾ 두 번째 가례를 올렸다. 효정왕후 가례 역시 납채(10월 6일), 납징(10월 9일), 고기(10월 15일), 책비(10월 18일), 친영(10월 21일), 동퇴연(10월 21일 未時)이 거행되었다(표 1). 육례에 소요된 전체 기간은 약 보름 정도로 앞의 효현왕후 가례 때와 비슷하다. 물론 이에 앞서서는 초간택(4월 22일), 재간택(4월 26일), 삼간택(9월 10일)이 진행되었고, 동퇴연 이후 왕대비전(10월 22일)·대왕대비전(10월 23일) 조현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책비와 친영 사이인 10월 20일 동퇴연 기명을 내입하여 동퇴연을 준비하였다.⁹⁾

끝으로 유물이 현전하는 19세기 왕비의 가례로는 1866년 고종(高宗, 재위 1863~1907)과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¹⁰⁾ 가례를 들 수 있다. 납채(3월 9일), 납징(3월 11일), 고기(3월 17일), 책비(3월 20일), 친영(3월 21일), 동퇴연(3월 21일 丁時)까지 총 12일 남짓 소요되었다(표 1). 물론 이에 앞서

6)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규13139), 上冊, 舉行日記.

7) 『국역 국혼정례』, 국학자료원, 2007, 48~51쪽. 특별히 청화백자주해에 대해서는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 48, 2017, 17~18쪽 참조.

8) 효정왕후는 판돈녕부사 익풍부원군 홍재룡의 딸로, 14세에 헌종의 계비로 책봉되었다.

9) 『憲宗孝定后嘉禮都監儀軌』(K2-2597), 上冊, 舉行日記.

10) 1851년 영의정에 추증된 민치록의 딸로 태어났다.

초간택(2월 25일), 재간택(2월 29일), 삼간택(3월 6일)이 진행되었으며,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 조현례는 앞의 두 가례와는 달리 3월 22일 하루에 모두 진행되었다.¹¹⁾

이처럼 왕비의 가례는 육례의 모든 절차를 거쳤으며, 납채에서 동뢰연까지 약 12-15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후궁 (경빈김씨)

유물이 현전하는 19세기 후궁의 혼례로는 헌종과 경빈김씨(慶嬪金氏, 1834~1907)의 예가 있다.¹²⁾ 경빈김씨는 헌종 계비인 효정왕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자 1847년 10월 빈(嬪)에 간택되었다. 경빈김씨 역시 초간택(8월 4일), 재간택(9월 3일), 삼간택(10월 18일) 이후 육례를 거행하고 맨 마지막으로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 조현례를 같은 날에(10월 22일) 행하였다. 육례는 납채(納采, 10월 19일), 납폐(納幣, 10월 20일), 선교명(宣敎命, 10월 20일), 조현대전(朝見大殿, 10월 21일 未時), 동뢰연(同牢宴, 10월 21일 未時) 순서로 진행되었다(표 1).¹³⁾ 그러나 경빈김씨 육례에서 특이한 것은 앞의 왕비의 혼례에서와 달리 '납징'이 '납폐'로 명칭이 바뀌어 있고, 책봉 역시 '책비'에서 '선교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경빈김씨의 가례에서는 고기와 친영 의식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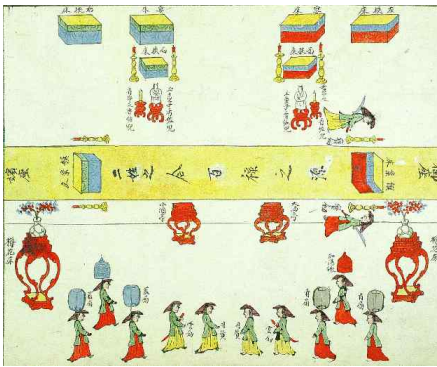
11) 『高宗明成皇后嘉禮都監儀軌』(K2-2599), 上冊, 日記.

12) 경빈김씨는 1832년 主簿 김재청의 딸로 태어났다. 1847년 10월 嬪으로 간택되어 慶嬪이라는 爵號와 順和라는 宮號를 받았다. 헌종은 그녀를 사랑하여 낙선재(1847년 건립)에 거처하도록 하였고, 헌종 사후 궁궐 밖 중부의 순화궁에서 살았다. 이옥,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장서각』 19, 2008, 41쪽.

13) 『慶嬪嘉禮臚錄』(귀K2-2614), 目錄.

14) 특별히 고기가 없는 것은 빈의 가례가 궁녀의 입궁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격을 낮추어 후궁의 가례를 차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옥, 앞의 논문.

친영은 유교 혼례의 대표 절차이나 후궁의 혼례에서는 생략되어 경빈김씨 혼자 별궁에서 나와 입궐하여 국왕을 알현하는 조현대전(朝見大殿)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불완전한 혼례로 왕비와는 다른 상대적으로 낮은 후궁의 지위를 보여준다. 의례 기간도 왕비의 경우 납채부터 대왕대비전 조현례까지 약 13-17일 정도 소요된 반면, 경빈의 경우 불과 사흘이 걸려 왕비와 후궁의 위계에 따른 차등을 보인다.



<그림 1> <동뢰연배설도>, <<경빈김씨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이러한 차별은 의례의 외형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다.¹⁵⁾ 즉 효정 왕후와 경빈의 폐백 경우 비단의 종류와 수량에 차등을 두었다. 책봉 역시 책비 시 받는 교명문(敎命文)·책문(冊文)·보인(寶印)·명복(命服) 중 경빈김씨의 경우는 책문과 보인이 생략되었다. 동뢰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왕비의 경우 왕과 왕비가 서로 절하는

절차가 없다. 오히려 왕이 왕비를 전(殿) 밖에서 실내로 인도하기 전에 왕비에게 읍례하고 실내로 들어와서는 동서로 마주선 뒤 합근례를 행하였다. 반면 경빈김씨의 경우 합근례 시 왕은 북쪽에서 남향 하고, 빈은 남쪽에서 북향하였다(그림 1). 그리고 빈의 일방적인 사배(四拜)만이 있었다. 이처럼 왕과 빈의 자리는 부부의 동등한 자리가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준다.

2008, 52~53쪽.

15) 이옥, 앞의 논문, 2008, 55~62쪽.

<표 1> 왕비·후궁의 육례 절차와 거행 날짜

육례절차 신분		납채 (納采)	납징 (納徵)	고기 (告期)	궤비 (冊妃)	친영 (親迎)	동뢰연 (同牢宴)
왕 비	효현왕후 (1837)	3월 6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8일	3월 20일	3월 20일 (午時)
	효정왕후 (1844)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5일	10월 18일	10월 21일	10월 21일 (未時)
	명성황후 (1866)	3월 9일	3월 11일	3월 17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1일 (丁時)
후 궁	경빈김씨 (1847)	10월 19일	10월 20일 (‘納幣’로 명칭 바뀜)	생략	10월 20일 (‘宣敎命’으 로 명칭 바뀜)	생략 (대신 '朝見大殿' 거행, 10월 21일)	10월 21일 (未時)

<표 2> 공주의 육례 절차와 거행 날짜

육례절차 신분		납채 (納采)	납폐 (納幣)	명복내출 (命服內出)	친영 (親迎)	공주예 부마방 (公主詣 駙馬房)	동뢰연 (同牢宴)
공 주	덕온공주 (1837)	7월 4일	7월 16일	8월 7일	8월 13일	8월 13일	8월 13일

3. 공주 (덕온공주)

유물이 현전하는 19세기 공주의 혼례로는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예를 들 수 있다. 덕온공주는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와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3녀로 조카인 헌종의 첫 번째 가례가 있었던 1837년에 남녕위(南寧尉, ?~?)에게 하가(下嫁) 하였다.¹⁶⁾ 결혼과 동시에 출궁하는 공주

는 혼례 후 입궁하는 비·빈(妃·嬪)의 의례 절차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덕온공주 혼례 절차 역시 육례에 앞서 부마의 초간택(5월 26일), 재간택(6월 4일), 삼간택(6월 25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납채(納采, 7월 4일), 납폐(納幣, 7월 16일), 명복내출(命服內出, 8월 7일), 친영(親迎, 8월 13일), 공주에 부마방(公主詣駙馬房, 8월 13일), 동퇴연(同牢宴, 8월 13일)이 거행되었고(표 2), 이후에는 시집 어른과 조상에게 인사드리는 현구고(見舅姑, 8월 14일), 현사당(見祠堂, 8월 15일)이 행하여졌다.¹⁷⁾ 여느 왕녀의 혼례와 같이 혼주는 왕이 아닌 종친 중 당상관이 맡았으며(完昌君 李時仁), 역시 임시로 신부집(寺洞本房)이 마련되었다.¹⁸⁾ 왕녀 혼례 중 가장 독특한 절차는 명복(命服)을 부마가에 보내는 의식이다. 그리고 친영시 부마는 궁궐이 아닌 신부집인 사동본방으로 가서 덕온공주를 맞이하고, 저동본방¹⁹⁾으로 가서(‘공주에 부마방’) 그곳에서 동퇴연을 하였다.

이처럼 덕온공주 혼례 절차에 대해서는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臚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인에 소용된 물품, 참여 인력, 의식 절차 및 제반 사항 등이 의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신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²⁰⁾ 앞의 왕비와 후궁의 혼례에서는 육례 절차의 명칭과 내용에 차이를 주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분에

16) 『憲宗實錄』, 卷4, 憲宗 3年 8月 13日.

17) 『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국립고궁박물관, 2017, 58~148쪽.

18) 이육, 「해제 『덕온공주가례등록』과 덕온공주 혼례 절차」, 『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국립고궁박물관, 2017, 27쪽, 33쪽.

19) 筓洞本房은 덕온공주가 출함하여 생활하기 위해 조성된 공주궁인 筓洞宮을 의미하며, 현 명동 로얄호텔 근처에서부터 동쪽으로 중앙극장 청계천변 부근 일대에 위치하였다.

20) 왕비와 세자의 혼례는 都監에서 주도하고 행사 후 의례가 만들어지는 반면 대군·왕자·공주·옹주의 혼례는 都廳에서 주관하고 이후 가례등록이 제작되었다. 이육, 앞의 논문, 2017, 23쪽.

차이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것이 덕온공주의 혼례에서는 ‘납징’이나 ‘의궤’의 명칭 대신 ‘납폐’나 ‘등록’을 사용함으로써 위계를 구별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왕비·후궁·공주의 혼례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실의 혼례는 주인공의 지위에 따라 혼례의 절차와 내용에 차등을 두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간행한 책의 명칭 또한 구별하였다. 이는 유교의 예에 기인한 것으로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가 실제 사용되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Ⅲ. 19세기 왕실 혼례 소용 백자 및 특징

1. 혼례 소용 현전 백자



<그림 2> <백자청화수복자문대접>, 1837년, ‘덕유가례시큰던고간이뉴일독팔’,
고 8.7cm, 구경 22.2cm, 저경 10.5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3> <백자청화복자문접시>, 1844년, ‘갑진가례시큰던고간티동쇼칠십дук’,
고 3.3cm, 구경 13.3cm, 저경 7.8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 <백자청화복자문호>, 1866년, ‘병인가례시큰던고간대동쇼이십дук’ ‘大’,
고 21.0cm, 구경 13.5cm, 저경 13.0cm, 국립고궁박물관

효현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 경빈김씨, 덕온공주 혼례와 연관이 있는 현전 백자는 모두 점자명 백자로 최근 필자가 발굴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현재 14점이 확인된다(표 3). 이들 백자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는 명문, 문양, 기술(질·굽꺾음·굽받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명문은 모두

백자 굽주변 혹은 굽안바닥에 ‘간지+가례(길례)+소용처+크기+수량’의 내용이 점각되어 있다. 즉 효현왕후(1837)·효정왕후(1844)·명성황후(1866)의 혼례 소용 백자의 굽 부분에는 각각 ‘덩유가례시큰던고간이뉴일독팔(1837)’·‘덩유가례시큰던고간이뉴오(1837)’, ‘갑진가례시큰던고간디동쇼칠십독(1844)’, ‘병인가례시큰던고간대동쇼이십독(1866)’ 등의 명문이 있다(그림 2~4). 이들 백자는 간지와 가례 사실로 인해 언제, 누구의 혼례에 사용된 것인지가 파악되었다.²¹⁾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백자가 육례 중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큰던’이 어느 궁궐의 무슨 전각인지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규명은 백자의 실제 사용(장소·용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왕비의 혼례에 사용된 이들 백자는 동뢰연에 이어지는 피로연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육례 절차 중 납채·납폐·친영 시 국왕이 신민에게 술을 내리는 선온(宣醞)이 행하여져²²⁾ 여기에 백자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선온은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아니고 의식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왕비 가례에 사용된 점각명 백자도 발·완·대접·접사·호 등이어서 선온례 보다는 동뢰연 직후 피로연에서 조정의 문무백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잔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그리고 동뢰연에서는 청화백자주해 이외에는 자기가 사용되지 않아 혼례에 사용된 점각명 백자는 동뢰연이

21) 점각명 백자의 편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최경화, 「編年資料를 통하여 본 19世紀 靑畫白磁의 樣式的 特徵」, 『美術史學研究』 212, 1996; 同著, 「朝鮮後期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 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3~95쪽.

22) 『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국립고궁박물관, 2017, 232쪽.

23) 왕실 혼례에서 본격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잔치는 동뢰연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왕실의 혼례 절차를 언급한 기록을 보면 동뢰연 직후 왕과 왕비는 신방에 가서 예를 마치고 입었던 예복을 갈아입는다. 그후 대청에 나아가 내빈들의 축하인사를 받고 찬안상을 받으면, 내빈들도 함께 찬안상을 받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황문환 외,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13쪽.

아닌 동퇴연에 이어지는 피로연에서의 소용을 뒷받침해 준다.

피로연에서 사용된 점각명 자기는 당연히 동퇴연이 치러지는 전각의 고간에 내입 되었을 것인데, 그 전각은 명문에 명시된 ‘큰던’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가례도감의궤에 보면 동퇴연 기명의 내입을 알 수 있으며,²⁴⁾ 동퇴연 기명이 내입되었던 고간에 피로연에서 사용할 자기들도 함께 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세기 효현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의 동퇴연은 각각 창덕궁 대조전,²⁵⁾ 경희궁 광명전,²⁶⁾ 창덕궁 중희당²⁷⁾에서 거행되어 명문에서의 ‘큰던’은 바로 이곳 전각을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24) 본고 II장 1절에 왕비의 가례를 보면 효현왕후 가례에는 고기와 책비 사이에 그리고 효정왕후 가례 때는 책비와 친영 사이에 동퇴연 기명이 내입되어 육례 진행 과정 중에서도 동퇴연 직전에 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憲宗實錄』卷4, 憲宗 3年 3月 20日. 참고로 대조전은 창덕궁의 內殿 중 가장 으뜸가는 건물이다.

26) 『憲宗實錄』卷11, 憲宗 10年 10月 21日.

27) 『高宗實錄』卷3, 高宗 3年 3月 21日. 참고로 堂과 殿은 그 위상이 다르나, 중희당은 조금 예외적 성격을 띤다. 동궁인 저승전(儲承殿)이 1764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한동안 동궁을 건립하지 않다가 한참 후인 1782년 문효세자가 탄생하자 원자를 위해 중희당을 건립하였다. 따라서 중희당은 동궁인 저승전을 대신한 것이어서 殿의 위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던’으로 명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
 <백자청화화문발>, 1847년,
 ‘덩미가례시순화궁고간대동쇼삼십독’,
 고 11.0cm, 구경 17.2cm, 저경
 8.4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6>
 <백자접시>, 1847년,
 ‘덩미가례시순화궁고간대동쇼삼십
 독’, 고 5.0cm, 구경 18.5cm, 저경
 9.4cm, 국립중앙박물관

한편 후궁인 경빈김씨 혼례(1847)에 사용된 발·완·접시 등에는 각각 ‘덩미가례시순화궁고간대동쇼삼십독’과 ‘덩미가례시순화궁고간대동쇼삼십독’ 등의 점각명이 있다(그림 5, 6). 그러나 이 백자들은 위의 왕비 가례에서와 같이 동뢰연의 피로연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경빈 김씨의 동뢰연은 창경궁 통명전에서²⁸⁾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명문의 ‘순화궁’은 경빈 김씨가 빈으로 간택된 후 받은 궁호이어서 명문의 백자들은 혼례 이후 경빈김씨 처소인 순화궁²⁹⁾ 고간에 반입되어 사용되었던 혼수품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명문의 ‘순화궁고간’이 어디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헌종이 1847년 책을 읽고 쉬는 공간(‘연침(燕寢)’)으로 낙선재를 짓고 경빈김씨를 사랑하여 낙선재에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낙선재 동쪽에 석복헌을 지어 경빈의 처소로 쓰게 하였던 사실이 있어 주목된다.³⁰⁾ 이러한 정황으

28) 황문환 외, 앞의 책, 2010, 13쪽.

29) ‘순화궁’에 대해서는 경빈의 생가에 붙여진 이름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문 백자는 정미 가례 때 경빈의 생가 고간에서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최경화, 앞의 논문, 1996, 79쪽). 그러나 명문에서 순화궁은 경빈의 생가가 아닌, 빈으로 간택되어 順和라는 궁호를 받은 이후 경빈의 처소를 일컫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왕실 가례에서는 신부의 본가를 대신하여 별궁이 조성되므로, 신부의 생가에서는 혼례용 백자가 사용될 일이 없다.

로 볼 때 정미년(1847) 가례 직후 경빈 처소로 사용되었던 낙선재 고간을 ‘순화궁고간’으로 호칭한 것이라 판단된다(그림 7).



<그림 7>
<낙선재 고간이 위치한 행랑채 모습>

후궁에 이어 덕온공주 혼례(1837)에 사용된 발·대접·접시에는 ‘더동궁길례시숙설쇼이뉴일독오’·‘더동궁길례시숙설쇼이뉴일독’·‘더동궁길례시숙설쇼이뉴오독’ 등의 접각명을 볼 수 있다(그림 8~11). 이들 백자의 용도는 동퇴연 직후 거행된 피로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다. 그 이유는 앞서 덕온공주 육례 절차에서 살펴보았듯이 ‘더동궁’에서 동퇴연이 행하여졌고, 명문의 숙설소 역시 왕실 잔치 때 임시로 설치되는 주방이어서 동퇴연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공주의 경우 왕비의 혼례에서와 같이 궁궐의 내전(內殿)에서 동퇴연을 치루지 않는데, 이는 입궁하여 혼례를 치루는 왕비와는 달리 출합하여 혼례를 치루는 공주 혼례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공주는 혼례 후 생활하게 될 공주궁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곳에서 동퇴연을 치렀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왕비와 후궁 소용 백자의 명문이 ‘간지+행사(가례)+장소(큰던)+소용처(고간)+이뉴+수량’의 순서라면, 덕온공주 소용 백자의 명문은 ‘장소(더동궁)+행사(길례)+소용처(숙설쇼)+이뉴+수량’의 순서로 간지가 생략되고, 혼례의 명칭도 가례에서 길례로 바뀌어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왕실 혼례에서 왕통과 상관있는 왕·왕세자를 제외한 대군·군·공주·옹주의 혼례를 가례가 아닌 ‘길례’라고 명칭하기 때문이다.³¹⁾ 이처럼

30) <http://www.doopedia.co.kr>; 이옥, 앞의 논문, 2008, 41쪽.

31) 金用淑, 앞의 책, 1987, 199쪽.

유교의 예에 입각한 차등을 혼례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에 이어 19세기 왕실 혼례 소용 백자 문양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완·대접·접시·호 등 총 14점 가운데 1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청화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혼례용 백자에 나타나는 문양은 수복문자가 7점으로 가장 많으며, 발·대접·접시·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발·대접·접시의 내저 원권 안에 壽·福자를 해서체로 필사하거나(그림 8, 9, 11), 대접 내외면에 백수복자문을 해서체로 시문하였다(그림 2). 반면 항아리는 동체 중앙에 전서체로 壽·福자를 크게 필사하였다(그림 4). 수복문자에 이어 花紋은 6점으로 발·완·접시·호 등에 모란·당초·불수국화문·『ω』 등을 시문하였는데(그림 5, 10, 12, 13), 모란문은 왕실 혼례용 백자 문양으로는 필자가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 즉 현재까지 점각명이 있는 왕실 혼례용 백자로는 모란문이 시문된 예가 알려진 것이 없었다. 한편 경빈김씨 혼례에 사용된 발 외측의 『ω』 문양은 일본적 요소를 보여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시사해준다(그림 5, 14).³²⁾ 혼례용 백자 뿐 아니라 여타의 왕실 소용 백자에서도 외래 요소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³³⁾ 이는 외래 자기를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경험하고 향유하였던 계층이 왕실이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32) 크고 작은 패널이 교대로 배치되고 큰 패널 안에 꺾쇠 무늬와 화창을 넣는 ‘크라악양식(Kraak-style)’ 청화백자는 명말청초 아시아와 유럽에 수출된 중국 크라자기에서 기원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중국에서는 생산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수입했던 일본에서는 19세기 이후에도 크라양식이 널리 애호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크라양식 자기는 對조선 수출품으로 유입되어 크라양식의 청화백자가 19세기에 국내에서도 생산되었으며, 왕실에서 애호되었다. 김기혜, 「조선 후기 크라(Kraak)양식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참조.

33)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운현’의 명문이 있는 병·호, 접시, 잔에는 각각 당초문, 영지초화문, 보상화문 등 중국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무신경수궁’銘의 사각병에는 雲割+若松, 松皮菱, 花流水紋 등 일본적 요소를 볼 수 있다.



<그림 8> <백자청화수자문발>, 1837년, '더동궁길례시숙설소이뉴일독오',
고 8.5cm, 구경 15.5cm, 저경 7.8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9> <백자청화복자문대접>, 1837년, '더동궁길례시숙설소이뉴일독오',
고 9.4cm, 구경 20.0cm, 저경 9.6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10> <백자청화당초문접시>, 1837년, '더동궁길례시숙설소이뉴일독오',
크기미상, 해강도자미술관

끝으로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에 나타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발·완·대접·접시·호 등 14점의 백자는 모두 유태가 정선된 양질로 대다수가 얇은 담청색조를 띤다. 백자 굽은 수직으로 낮아 안정적이고, 굽 안을 굽 바깥보다 깊게 깎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것은 중국 자기의 영향이어서³⁴⁾ 19세기에 문양 뿐 아니라 굽깎음 기술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굽받침은 접지면의 유약을 닦고 고운 모래나 내화토 혹은 내화토물 등을 받쳐 구웠다. 조선 전기 관요에서부터 양질 백자의 굽받침은 전형적으로 고운 모래받침이었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양질백자에 다양한 굽받침이 사용되었으며, 19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³⁵⁾ 특기할만한 것은 혼

34) 최경화, 앞의 논문, 2014, 131쪽.

35) 최경화, 「분원리 1호요지 가마2호 발굴의 양상 및 의의-상부퇴적 및 바다내 출토품을 중심으로-」, 『陶藝研究』 25, 2016, 111~113쪽; 同著, 「景福宮 출토 19세기 백자의

례 소용 백자의 경우 왕비나 후궁, 공주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질이 모두 양질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주인공의 지위가 육례의 절차나 내용에 차등을 야기하였던 것과는 달리, 백자의 질에는 어떠한 차이도 유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백자청화수자문접시>, 1837년, '더동궁길례시숙설쇼이뉴일독오',
고 5.0cm, 구경 19.5cm, 저경 10.6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12> <백자청화모란문완>, 1847년, '덩미가례시순화궁고간대동...',
고 12.0cm, 구경 19.0cm, 소장처 미상

<그림 13> <백자청화불수국화문호>, 1866년, '병인가례시큰던고간디동쇼이십독',
'大', 고 19.0cm, 국립고궁박물관

제작상 특징 및 의미 - 燒廚房址, 興福殿址, 咸和堂·緞敬堂 行閣址를 중심으로, 『美術史學報』 40, 2013, 127~133쪽.

<표 3> 19세기 왕실 혼례 소용 백자 및 명문

왕실혼례		유물 (* 단위; cm)	명문
왕 비	효현왕후 (1837)	<白磁靑畫壽福字紋花形大接>, 고8.7 구경22.2 저경10.5,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2)	‘명유가례시큰던고 간이뉴일독팔’(굽안)
		<白磁靑畫壽福字紋花形大接>, 고8.0 구경21.9 저경10.2, 서울역사박물관	‘명유가례시큰던고 간이뉴오’(굽안)
	효정왕후 (1844)	<白磁靑畫福字紋接匙>, 고3.3 구경13.3 저경7.8,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	‘갑진가례시큰던고 간딤둥쇼칠십독’ (굽주변)
	명성왕후 (1866)	<白磁靑畫福字紋壺>, 고21.0 구경13.5 저경13.0,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4)	‘병인가례시큰던고 간대둥쇼이십독’/‘大’ (굽주변/굽안 청화명)
		<白磁靑畫佛手菊花紋壺>, 고19.0, 국립고궁박물관(그림 13)	‘병인가례시큰던고 간딤둥쇼이십독’/‘大’
후 궁	경빈김씨 (1847)	<白磁靑畫花紋鉢>, 고11.0 구경17.2 저경8.4,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	‘명미가례시순화궁 고간대둥쇼삼독’ (굽주변)
		<白磁靑畫花紋鉢>, 고11.0 구경17.8 저경7.0, 국립중앙박물관	‘명미가례시순화궁 고간대둥쇼삼독’
		<白磁靑畫花紋鉢>, 고10.6 구경18.9 저경8.6,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명미가례시순화궁 고간대둥쇼삼독’
		<白磁靑畫牡丹紋盥> ³⁶⁾ , 고12.0 구경19.0, 소장처미상 (그림 12)	‘명미가례시순화궁 고간대둥...’(굽주변)
		<白磁接匙>, 고5.0 구경18.5 저경9.4,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6)	‘명미가례시순화궁 고간대둥쇼삼십독’ (굽주변)

36) 이 유물은 필자가 처음으로 자료화한 것으로, 『조선고적도보』에 ‘染付牡丹文盥’으로 기재되어 있다. 높이 三寸九分三厘, 구경 六寸三分七厘으로 되어있는 것을 여기서는 센티미터로 환산하여 명시하였다. 조선총독부 編, 『조선고적도보』 15권, 민족문화, 2005, No. 6551.

공 주	덕은공주 (1837)	<白磁靑畫壽字紋鉢>, 고8.5 구경15.5 저경7.8,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8)	‘더동궁길례시숙설 쇼이뉴일독오’ (굽주변)
		<白磁靑畫福字紋大接>, 고9.4 구경20.0 저경9.6,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9)	‘더동궁길례시숙설 쇼이뉴일독’(굽주변)
		<白磁靑畫唐草紋接匙>, 크기미상, 해강도자미술관(그림 10)	‘더동궁길례시숙설 쇼이뉴오독’(굽주변)
		<白磁靑畫壽字紋接匙>, 고5.0 구경19.5 저경10.6,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11)	‘더동궁길례시숙설 쇼이뉴일독오’ (굽주변)

2. 기록에 나타난 혼례 소용 백자

본 절에서는 19세기 왕실 혼례에 소용된 백자의 내용을 기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기록은 덕은공주(1837), 경빈김씨(1847), 순종(1882), 의친왕 (1893) 혼례 관련 발기와 일기 등이다. 발기는 낱장 형태의 기록물이어서 현재 누락된 부분도 존재하나, 다수의 발기를 함께 비교·분석할 경우 왕실 혼례용 백자의 대체적 윤곽과 다양하고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1) 「명유길례시사기불귀」 「명유길례시숙설간괴명드러온슈」 「명유동츄길례시」

3건의 발기는 덕은공주의 정유길례(1837)와 연관이 있는 자기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앞의 두 기록은 혼례 때 소용된 자기만을 정리한 사기발기이고, 마지막 기록은 어머니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다양한 혼수품을 적은 혼수발기로 그 가운데 자기의 내용도 있다. 각각의 발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유길례시사기별기」

1837년 덕온공주 길례 때 사용한 사기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현재 원문은 궁체이며, 일부 해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³⁷⁾ 원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원문 옆에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는 내용을 해석하였다.³⁸⁾ 원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기종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발기는 내용으로 보아 혼례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뒷부분에 별도로 시전에서 구입 후 사용하고 남은 자기의 내용을 적고 있어 표에서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37) 본고에서 소개하는 일부 발기 내용의 해독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황문환 교수님의 자문을 받았음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38)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41쪽, 器皿 20-1, 20-2.

화향대등쇼십삼쌍너일쌍팔모개구(畫缸大中小十三雙內一雙八角蓋具; 화향대중소 13쌍 中 한 쌍은 8각으로 뚜껑 있음), 화쇼통항일개구(畫小筒缸一蓋具; 소통항 1개로 뚜껑 있음), 화사대합일개구(畫沙大盒一蓋具), 화사둥쇼합구쌍허나개구(畫沙中小盒九雙一蓋具; 화사중소합 9쌍 중 하나에 뚜껑 있음), 백사합일쌍개구(白沙盒一雙蓋具), 화큰병일(畫大瓶一), 화병대등쇼오쌍(畫瓶大中小五雙), 화조롱병이쌍(畫 조롱병二雙), 화쇼소병이쌍(畫小小瓶二雙), 화사다관일(畫沙茶罐一), 백사다관일쌍(白沙茶罐一雙), 접시대등쇼일백스독(楪匙大中小一百四竹), 사발십칠독(沙鉢十七竹), 사대접대등쇼이십오독(沙大楪大中小二十五竹), 사슈복즈대덤일쌍(沙壽福字大楪一雙), 연엽접시일독(蓮葉楪匙一竹), 탕기대등쇼십삼독(湯器大中小十三竹), 팀치보으삼십칠독(沈菜甫兒三十七竹), 조치기이십스독(助齒器二十四竹), 화보으일독(畫甫兒一竹), 종즈오십일독오(鍾子五十一竹五), 숙설쇼의셔드러온굽덤시스십오독(熟設所에서 들어온 굽접시 四十五竹), 길례시사온상기명남스온수(吉禮時 사가지고 온 常器皿 남은수)-사 발오독(沙鉢五竹) 덤시십삼독(楪匙十三竹) 대접늑독(大楪六竹) 보으삼독삼(甫兒三竹三) 탕기스독(湯器四竹) 종즈늑독칠(鍾子六竹七)-.

<표 4> 기종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길례 때 사은 常器皿 남은 수	수량
접시	접시 대중소 104족, 연엽접시 1족, 굽접시 45족 (숙설소에서 유입)	13족	1630개
사발	사발 17족	5족	220개
대접	沙대접 대중소 25족, 沙수복자 대접 1쌍	6족	312개
탕기	탕기 대중소 13족	4족	170개
보아	침채보아 37족, 晝보아 1족	3족 3	413개
종자	종자 51족 5	6족 7	582개
조치기	조치기 24족	.	240개
항	晝항 대중소 13쌍(中 1쌍은 8각으로 뚜껑有), 晝小筒缸 1(뚜껑有)	.	27개
합	晝沙대합 1(뚜껑有), 晝중소합 9쌍(中 하나에 뚜껑有), 白沙합 1쌍(뚜껑有)	.	21개
병	晝대병 1, 晝병 대중소 5쌍, 晝조롱병 2쌍, 晝小小병 2쌍	.	19개
다관	晝沙다관 1, 白沙다관 1쌍	.	3개
			총 3,637개

전체 수량은 3,637개로 청화백자 78개를 제외하면 모두 백자이다. 발·접시·대접 등의 반상기명은 대개가 백자이고, 합·항·병·다관 등은 청화백자가 많다. 청화백자 문양으로는 19세기 청화백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수복자문만을 언급하였다. 접시 중에는 ‘굽접시’, ‘연엽접시’ 등이 있어 전통에서 사용하였던 구체적인 명칭을 시사해준다. 연엽접시는 도자에서는 그 명칭이 잊혀졌으나, 목공예에서는 ‘연엽반’이라는 명칭이 오늘날까지도 잘 계승되고

있다. 실제로 현전 백자 가운데 연잎을 형상화한 예가 있는데, 백자나 소반 모두 앞맥을 표현하여 사실감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15, 16). ‘굽접시’는 굽 모습이 일반적인 접시보다 특별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굽을 가진 고족접시일 가능성이 크다.³⁹⁾ 항의 경우 8각의 예와 뚜껑을 갖춘 자그마한 원통형태(‘筒缸’)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세품에서도 쉽게 확인된다(그림 17).



<그림 14> <염부초화당초문접시>, 1750-1780년대,
고 4.9cm, 구경 15.1cm, 저경 6.7cm, 사가헌립구주도자문화관

39) 고족접시는 본래 제례 용도였으나 점차 손님 접대나 연회 등에서도 사용되었고, 왕실과 사대부 뿐 아니라 일반 계층에까지 확대되었다. 굽의 높이는 1.5-4.0cm로 다양하다. 정다혜, 「朝鮮 18-20世紀 白磁 高足楮匙(고족접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34쪽, 94~110쪽.



<그림 15> <백자연엽접시>, 19세기, 구경 22.3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6> <나전연엽반>, 18-19세기, 고 22.5cm, 지름 31.0cm, 삼성미술관리움
 <그림 17> <백자통형소호>, 19세기, 고 8.7cm, 구경 5.1cm, 저경 4.8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리고 ‘길례 때 사온 常器皿 남은 수’의 내용을 통해서도 길례 때 시전 자기의 구입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동법 시행 이후 왕실 소용 자기가 분원 진상품과 시전 구입품의 이원체제로 조달되었음을 시사해준다. 현전하는 19세기 왕실 혼례 소용의 점각명 백자는 모두가 갑번한 양질품이나, 시전에서는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상사기를 구입하여 갑기와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숙설소에서 유입된 굽접시...’, ‘길례 때 사온 常器皿 남은 수’의 내용으로 보아 이 받기는 혼례 이후 길례에 소용된 자기의 품목과 수량을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화백자 병에 ‘小小’라는 내용이 있어 백자의 크기분류를 시사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분원자기공소절목(分院磁器貢所節目)』 내출별번기명공가에 ‘소소접시’나 덕온공주 혼수받기인 「녕유동츄길례시」에 ‘화각방병소소쇼이십칠개(華角方瓶小小小二十七箇)’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⁴⁰⁾

(2) 「명유길례시숙설간괴명드러온슈」

덕온공주의 정유길례(1837) 때 숙설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기명의 수를 기록한 사기발기이다.⁴¹⁾ 현재 원문은 궁체이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원문 옆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원문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기종 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기종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수량
접시	대접시 3족 6개, 중접시 9족 4개, 소접시 4족 5개	175개
사발	대사발 1족 5개, 중사발 4족	55개
대접	대접 2족	20개
탕기	탕기 7개	7개
종자	종자 6족 1개	61개
	이상 합 21족 8개(*원문의 계산은 착오임, 실제로는 31족 8개임)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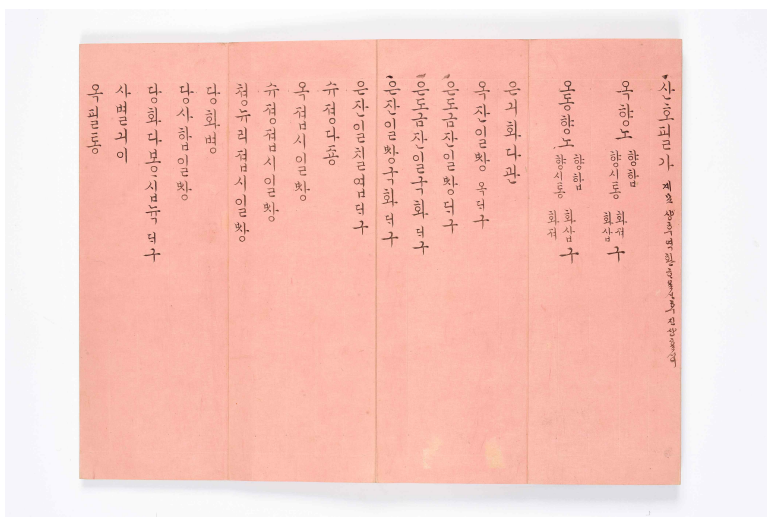
40) 『分院磁器貢所節目』, 「器皿定價式秩」 ‘內出別燔器皿貢價’: 「명유등추길례시」, 32.8×541.5cm, 한글박물관. 참고로 전통 도자의 크기가 ‘대·중·소’ 외에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조선 전기 요지인 변천리 9호 출토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발의 경우 ‘小’ 보다 작은 것을 ‘特小’로, ‘大’보다 큰 것을 ‘特大’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분원자기공소절목』 기록의 ‘小小’와 ‘大大’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새로문화, 2007, 55쪽, 65쪽.

41)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41쪽, 器皿 22. 대접시삼족육개(大樑匙三竹六個), 중접시구족스개(中樑匙九竹四個), 소접시스족오개(小樑匙四竹五個), 대사발일족오개(大沙鉢一竹五個), 중사발스족(中沙鉢四竹), 대접이족(大樑二竹), 탕기칠개(湯器七個), 종즈족육일개(鐘子六竹一個), 이상합이십일족팔개(以上合二十一竹八個), 화항대등쇼이십일개(畫缸大中小二十一個), 화등쇼합칠개(畫中小盒七個), 화병칠개(畫瓶七個), 대접시스십족(大樑匙四十竹), 소접시십일족(小樑匙十一竹).

항	畵항 대중소 21개	21개
합	畵중소합 7개	7개
병	畵병 7개	7개
접.시	대접시 40죽, 소접시 11죽	510개
		총 863개

반상기명과 항·합·병 등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접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반상기명은 백자이고 이를 제외한 항·합·병 등은 청화백자인데, 이러한 것은 앞의 발기에서와 같다. 기록 앞부분에 접시~종자까지의 합을 21죽 8개라고 하였으나, 이는 계산 착오이며 318개이다. 사기발기를 보면 이와 같은 계산 착오나, 한글 발음이 같을 경우 전혀 다른 뜻의 한자를 사용하는 등 오류를 쉽게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덕온공주 혼례에 사용되었던 기명의 수는 앞의 사기발기의 3,637개와 위의 863개를 합쳐 4,500개 가량이다. 그러나 현전하지 않는 사기발기의 존재 가능성도 있어 대략의 규모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덩유등추길례시」



<그림 18> 「덩유등추길례시」 중 일부, 1837년, 色紙折帖, 32.8×541.5cm, 한글박물관

앞서 살펴본 두 발기는 25~30×35~40cm 크기의 날장 짜리 한지로 제작되어 전해지던 것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 반면 「덩유등추길례시」 발기는 순원왕후가 출합하는 덕온공주에게 직접 준 것으로 분홍색지에 절첩형태로 고급스럽게 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공주 후손 집안에 소장되었다(그림 18).⁴²⁾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전자에 기록된 자기는 관물(官物)로 피로연에 소용되었다면, 「덩유등추길례시」에 기록된 자기는 혼례 이후 사용된 공주의 혼수품으로 추정된다. 「덩유등추길례시」 발기에는 생활

42) 현재는 한글박물관 소장으로 2016년 덕온공주 후손 家에서 박물관에 이관되었다.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덕온공주 관련 혼수발기는 「덩유등추길례시」 이외에 순원왕후가 부마인 남녕위에게 준 혼수발기가 1점 더 있다.

에 필요한 기명·가구·문방구·옷감·종이·부채·장신구 등 220여 점의 각종 다양한 물품들이 은·수정·옥·유리·화각·상아·주석·백동·흑각·서각 등 다양한 재질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자기도 있으며, 자기의 내용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발기의 원문은 궁체이며, 이해를 위해 필자가 유추하여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는 내용을 해석하였다.⁴³⁾ 원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기종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수량
병	唐畫瓶	·
합	唐沙盒 1쌍	2개
茶捧	唐畫茶捧十六臺具 (그림 있는 중국茶具 16개로 받침 갖춤)	16개
접시	당화구립꺄접시(唐畫九立O接匙)	9개
기타	사별괴이(沙別器二)	2개
호	청채화호 1쌍	2개
준(樽)	청채화준 1쌍	2개
		총 24개

43) 「영유등추길례시」, 32.8×541.5cm, 한글박물관.

“...당화병(唐畫瓶), 당사합일쌍(唐沙盒一雙), 당화다봉십육구(唐畫茶捧十六臺具; 그림 있는 중국茶具 16개로 받침 갖춤), 사별괴이(沙別器二) ... 당화구립꺄접시(唐畫九立O接匙) ... 청채화호일쌍(靑彩畫壺一雙), 청채화준일쌍(靑彩畫樽一雙)...”
참고로 내용에서 ‘다봉’은 찻잔 받침이 아닌 다구로 해석하였는데 그것은 받침을 갖추고 있고(臺具), 또한 다봉 이외에는 차 관련 자기가 발기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딸 혼수로 찻잔 받침만 주었을 리는 만무하므로 다봉을 크게 다구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크게 중국자기(병·합·다구·접시)와 국내산 추정 자기(호·준·別器)로 구별되며, ‘사별괴이’, ‘당화구넙즈접시’ 등은 현재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자기의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명시된 것만 계산하면 총 24개이다. 앞서 본 두 개의 덕온공주 사기발기에서는 중국자기를 찾아볼 수 없으나, 「녕유둥츄길례시」에서는 전체 24개 중 18개로 비중이 크다. 더욱이 「녕유둥츄길례시」에 기재된 대부분의 물품들이 고급 재질인 것으로 보아 여기의 중국자기 역시 고급품으로 추정된다.

공주 혼수품에 중국 다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다봉(茶捧)이라 명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녕유길례시사기불괴」에도 다관(茶罐)이 있어 19세기 전반 왕실에서 음다가 꽤나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왕실에서 차는 의례에도 사용되었던 만큼 다구의 지속적 사용과 제작이 19세기 말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은 『분원자기공소절목(分院磁器貢所節目)』에 다구의 종류와 가격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⁴⁵⁾

전체적으로 발기 내용에 자기의 양이 적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대접·종자·보아·탕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기가 혼수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녕유둥츄길례시」에 기재된 품목들은 재질이 비싸고 희소한 것이 다수이어서 소소한 일상기명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 자기의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19세기 전반 공주 혼수품으로 중국 자기가 애호되었음을 알 수

44) 고려 때 절정에 달했던 차문화가 조선 건국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18-19세기 이후 다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였다. 차는 주로 왕실·사찰·문인에 의해 소비되었고, 왕실에서는 진연·제향·接賓과 같은 의례에 사용되었다. 최준수, 「朝鮮 後期 茶文化와 白磁 茶具 研究」,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참조.

45) 『分院磁器貢所節目』, 「器皿定價式秩」元進上貢價에는 茶鐘의 가격이, 內出別燴器皿貢價에는 茶罐·茶鍾·點茶器·點茶鍾 등의 가격이 있어 분원공소 시기에도 다양한 다구를 제작하여 왕실에 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있다. 비록 혼수받기에 일본 자기의 내용은 없으나 일본제 찬합과 장(櫛) 등 목제품이 있어 왕실에서 외래물품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덩미가례시일기』

헌종과 경빈김씨의 정미가례(1847) 절차 및 그에 따른 소요 물품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가례 이후 사후복명서(事後復命書) 성격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기록의 이름은 일기이나 그 내용을 보면 가례도감의례와 받기의 성격을 띤다. 『덩미가례시일기』에⁴⁶⁾ 자기는 ‘구인사기’라는 항목에 기록되어 있으며, 딱히 항목 없이 다른 소용품들과 섞여 기재된 자기의 내용도 있다. 현재 ‘구인사기’는 가례 때 시전에서 구입한 자기로 추정된다. 자기에 대한 내용은 『덩미가례시일기』와 이본(異本)인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를 대조하여 주해한 저술을 참조하였다.⁴⁷⁾ 원문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기종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46) 『덩미가례시일기』(장K2-2708)는 현재 한문본과 한글본 異本인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규27008)와 『정미가례시일기』(장K2-2709) 등이 존재한다.

47) 황문환 외, 앞의 책, 2010, 319~323쪽 및 163쪽, 197쪽, 203쪽.

a. 구인사기 (구입사기)

청슈복즈반상일건(靑壽福字盤床一件), 청화반상일건(靑畫盤床一件), 빅슈복즈반상일건(百壽福字盤床一件), 빅반상삼건(白盤床三件), 화사발일독(畵砂鉢一竹), 던즈사발일독(篆字沙鉢一竹), 화대덥일독(畵大接一竹), 던즈대덥일독(篆字大樑一竹), 화합대등쇼일독(畵盒大中小一竹), 화항대등쇼일독(畵缸大中小一竹), 화병대등쇼일독(畵瓶大中小一竹), 각식사기이빅독(各色砂器二百竹).

b. 구인사기 이외에 자기

…빅금츠 | 반상일건(白金彩盤床一件), 청금츠 | 반상일건(靑金彩盤床一件)…외 빅금츠 | 반상일건(倭白金彩盤床一件), 청금츠 | 반상일건(靑金彩盤床一件), 당 빅금선반상이건 - 금스곡지일건·감스곡지일건(唐白金線盤床二件-金曲只一件·柿曲只一件), 빅금선괴스십닙-대등쇼대접접시종즈(白金線器四十箇-大中小 大接 樑匙 鐘子), 각식화기일빅닙(各色畵器一百箇)…화사시십건(畵砂匙十件)…

<표 7-a, b>와 같다.

<표 7-a> 기준에 따른 분류 : 구인사기 (구입사기)

기준	내용	계
반상	靑수복자반상 1건, 청화반상 1건, 百壽福字 ⁴⁸⁾ 반상 1건, 백반상 3건	90개(6건×15개) 혹은 96개(6건×16개) (*반상 1건의 자기 수량을 15개 혹은 16개로 계산함)
사발	畵사발 1죽, 篆字사발 1죽	20개
대접	畵대접 1죽, 篆字대접 1죽	20개
합	畵합 대중소 1죽	10개
항	畵항 대중소 1죽	10개
병	畵병 대중소 1죽	10개
사기	각색 사기 200죽	2000개
		총 2,160개 혹은 2,166개

현재 일기에서는 혼례에 사용된 자기의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다만 '구인사기'를 통해 시전에서 자기 구입 사실과 구입품의 규모 및 품목 등만을 알 수 있다. 구입한 자기는 반상 6건을 비롯하여 발, 대접, 각종 사기 등은 207죽이다. 왕실의 혼례에서 반상 1건에 약 15개 혹은 16개의 백자가 사용되

48) 註解書에서는 '靑수복자'의 한문을 '百壽福字'로 달아 놓았는데(황문환 외, 앞의 책, 2010, 321쪽), 필자는 '百壽福字'로 판단하여 각주 47과 <표 7-a>에서 수정하여 놓았다. 이유는 발기에서는 발음만 같으면 한자를 다르게 표기하는 오류들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紋器'를 '門器'로 '預器'를 '禮器'로 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발기에서도 '百壽福字盤床三十件'이 있어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38쪽, 354쪽) 일기에서의 '靑수복자'는 '百壽福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있던 예가 있어⁴⁹⁾ 이를 근거로 수량을 환산하면 2,160개(207족+(반상 6건×15개)) 혹은 2166개(207족+(반상 6건×16개))를 구입하였다. 문양을 알 수 있는 경우 모두가 수복자문이어서 19세기 왕실에서 수복문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특별히 반상기는 일반 그릇의 수량 단위를 죽(竹)으로 표기하는 것과 달리 건(件)으로 표시하였다.

<표 7-b> 기종에 따른 분류 : 구인사기 이외에 자기

기종	내용	수량
반상	白金彩반상 1건, 靑金彩반상 2건, 倭白金彩반상 1건, 唐白金縑반상 2건(금꼭지 1건, 감꼭지 1건)	90개(6건×15개) 혹은 96개(6건×16개) (*반상 1건의 자기 수량을 15개 혹은 16개로 계산함)
대접·접시·종자	白金縑器 40립 (대중소 대접·접시·종자)	40개
자기	각색 畵器 100립	100개
수저	청화 10건	10개
		총 240개 혹은 246개

구인사기 이외에 자기에는 청화백자 각종과 순가락을 비롯하여 중국·일본에서 수입된 자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수량은 반상 1건을 앞의 ‘구인사기’의 예에서와 같이 자기 15개 혹은 16개로 환산한다면 총 240개 혹은 246개 정도 된다. 수입자기는 반상과 대접·접시·종자 등으로 백자와 청화백자에 금채하거나 혹은 금선을 돌렸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외래자기에 대한 왕실의 지속적 애호와 특별히 선호했던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49) 순종과 의친왕 혼례 때 작성한 사기발기로 <표 8-a> 및 <표 9-a>에 반상 부분 참조.

앞서의 덕온공주 혼수발기에 일본자기는 없으나, 일기에는 있어 19세기 왕실 혼례에 중국·일본 자기가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자기에 금채나 금선을 두른 제품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매우 이색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채자기에 대한 인식은 이미 17세기 말경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본을 경험한 통신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8세기에도 지속되었다.⁵⁰⁾ 19세기에는 통신사 이외에 학자인 서유구(徐有渠, 1764~1845)에 의해서도 인식되었다. 예로 화려하고 정미하게 제작된 순백의 일본 자기(완·접시)에는 구연을 금으로 장식하거나 내저 가운데 수복자를 금으로 필사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⁵¹⁾ 서유구의 저술은 19세기 전반의 상황이어서 동시기에 작성된 『덩미가례시일기』의 금선·금채 자기의 양식을 어느 정도 유추케 한다. 즉 일기에 금으로 장식한 자기는 구연에 금선을 돌리거나 내저에 수복문자를 금채로 필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히 수복문자는 조선후기 관요 청화백자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기에,⁵²⁾ 조선 사회의 수복문자에 대한 높은 애호를 반영하여 수복문자가 필사된 금채자기들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화사시(畵砂匙)의 사용에 대해서도 주목해보고자 한다. 18세기에는 제작된 바 없는 화사시가 19세기 들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화사시는 당화시(唐畵匙)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이어서⁵³⁾ 19세기에는 접시·병·문방구

50)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論壇』 29, 2009, 197~218쪽.

51) 徐有渠, 『林園十六話』, 「贍用志」 卷2, 炊爨之具 華造瓷器(민속원, 2005). “…倭造碗楪 視華制尤精美 大抵多純白而金飾口緣 或金作壽福字于中(金華耕讀記)…”.

52) 수복문자는 도자 이외에 茶食, 돛자리, 비녀 등에도 널리 장식되었다. 혜경궁 홍씨 지음, 이선형 옮김, 『한중록: 내 붓을 들어 한의 세월을 적는다』, 서해문집, 2003, 93쪽; 柳得恭, 『京都雜誌』 卷1, 風俗 第宅;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쓰, 『동국세시기』, 도서출판 풀빛, 2009, 128쪽.

53) 김미경, 「19世紀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講座美術史』 33, 2009,

뿐만 아니라 화사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기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궁체 원문에서는 자기의 수량 단위를 ‘립(立)’으로 표기한 반면 한문의 이본(異本)에서는 ‘개(箇)’로 기재하여 표기를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손가락의 경우는 ‘건(件)’을 사용하였다.

3) 「嘉禮時砂器件記壬午二月」

이 자료는 1882년 순종(純宗, 재위 1907~1910)과 순명왕후(純明皇后, 1872~1904)의⁵⁴⁾ 가례에 사용되었던 사기의 목록과 수량에 관한 기록이다. 원문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크게 4부분(a~d)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⁵⁾ 각 부분의 내용을 기종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8-a, b, c, d>와 같다.

303쪽의 각주 32 참조.

54) 순명왕후는 여은부원군 민태호의 딸로, 『高宗實錄』 19卷 19년 2월 21일에 가례 사실이 확인된다.

55)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38쪽. 器皿 17-1, 17-2, 17-3.

- a. 靑彩壽福字盤床三十件, 靑彩畫盤床三十件, 百壽福字盤床三十件, 白別盤床一百十件 (砂鉢一盖具, 湯器一盖具, 大接一, 助齒器二盖具(大深本), 甫兒一盖具, 接匙七盖具, 鍾子三盖具, 茶罐一)-盤床每次兩入, 靑彩畫砂鉢大中小二百竹, 靑彩畫大接大中小二百竹, 靑彩畫湯器二百竹大中, 靑彩畫助齒器大中一百竹, 靑彩畫甫兒二百竹, 靑彩紋器接匙大中小八百竹, 靑彩紋器鍾子大中小五百竹, 都合二千二百竹.
- b. 白別大中砂鉢一百竹, 白別大接大中一百竹, 白別湯器一百竹, 白別助齒器大中小一百竹, 白別甫兒大中小一百竹, 白別接匙大中小七百竹, 白別種字大中小三百竹 都合一千三百竹.
- c. 靑彩篆字大中小砂鉢五十竹, 靑彩篆字大接大中五十竹, 靑彩篆字大磁碗三盒五十部, 靑彩畫盒五盒三十部, 靑彩篆字五盒二十部, 靑彩畫大中小盒二百部, 靑彩篆字小磁碗三盒十部, 靑彩畫大中缸二十五竹, 靑彩篆字缸大中小二十五竹, 靑彩畫小三缸五竹, 靑彩畫中小盒十竹, 靑彩畫大中瓶十竹, 畫砂匙二百竹, 靑彩畫小瓶二竹, 靑彩畫茶罐十竹, 靑彩畫盒大接篆字五盒十部, 都合一千三百竹五盒一百五十部 三盒五十部.
- d. 禮器
大中砂鉢一百竹, 大中小大接一百竹, 湯器大中一百竹, 甫兒大中一百竹, 接匙大中一百竹, 都合五百竹.

<표 8-a> 기종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수량
반상	청채수복자 반상 30건, 청채화 반상 30건, 百壽福字 반상 30건, 白別반상 110건 (사발1·탕기1·대접1·조치기2(크고 깊음)·보아1·접시 7·종자3(대접 제외)한 모든 그릇에 뚜껑 있음, 다관1) - 반상은 매차 2번 들임	200건×16개= 3200개 (*반상 1건의 수량은 뚜껑과 다관을 제외하고 16개로 계산함)
사발	청채화사발 대중 200족	2000개
대접	청채화대접 대중소 200족	2000개
탕기	청채화탕기 200족 대중	2000개
조치기	청채화조치기 대중 100족	1000개
보아	청채화보아 200족	2000개
접시	청채紋器 대중소 800족	8000개
종자	청채紋器 대중소 500족	5000개
	도합 2,200족 (* 반상 제외한 수량임)	22,000개
		3,200(반상) +) 22,000(반상 제외) = 총 25,200개

자기의 전체 수량은 25,200개로 백자 별번 반상(1,760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청화백자이다. 청화백자의 수량만큼이나 청화백자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靑彩畵’, ‘靑彩’, ‘靑彩紋器’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별히 백자 반상은 별번하여 진상한 것으로 보이며, 반상 내용을 통해서는 반상을 구성하는 기종(사발·탕기·대접·조치기·보아·접시·종자)과 첩수 그리고 대접을 제외한 나머지 그릇 모두가 뚜껑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백자 반상에 다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반상 내용을 언급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⁵⁶⁾

반상에서 청채수복자 문양은 대개 내저 원권 내 수복자를 해서체로 시문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百壽福字 문양도 시문되었다. 백수복자문은 19세기 도자 뿐 아니라 병풍이나 복식 등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어 당시 수복문자의 인기를 실감케한다. 특별히 반상의 접시 수량을 통해서는 혼인과 같은 왕실 잔치의 반상 규모(7첩)를 시사해주며, 반상의 수량 단위는 ‘건(件)’을 사용하였으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서는 ‘부(部)’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표기하였다.

<표 8-b> 기종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수량
사발	白別 대중 사발 100죽	1000개
대접	白別대접 대중 100죽	1000개
탕기	白別탕기 100죽	1000개
조치기	白別조치기 대중소100죽	1000개
보아	白別보아 대중 100죽	1000개
접시	白別접시 대중소 700죽	7000개
종자	白別종자 대중 300죽	3000개
	도합 1,300죽 (*원문의 1,300죽은 계산 착오이며 실제로는 1,500죽임)	15,000개

원문에서는 모든 기종 앞에 ‘白別’로 시작하여 백자 별번 제품으로 추정된다. 별번은 연례적으로 진상하는 수량 이외에 특별한 필요에 의해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종은 반상을 구성하는 것들로 대부분 100죽씩이나

56)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시, 1996, 408~445쪽; 徐有渠, 『林園經濟志』 贍用志 卷2 참조.

접시는 700죽이어서 7첩 반상 소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종자 역시 수량이 발·대접·탕기 등에 비해 많은 것은 7첩 반상에서는 한번에 간장·초장·초고추장의 용도로 3개가 상에 올려지기 때문이다. 기록에서 7개 기종의 합을 1,300죽이라고 했는데, 이는 계산 실수이며 실제로는 1,500죽이다.

<표 8-c> 기종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수량
사발	청채篆字 대중소 사발 50죽	500개
대접	청채篆字대접 대중 50죽, 청채화 盒대접 篆字 5盒10部	500개, 50개 (5합10부/ *5합의 개별 수량은 5개임)
완	청채篆字 大磁碗 3盒50部, 청채篆字 小磁碗 3盒10部	180개 (3합60부/ *3합의 개별 수량은 3개임)
합	청채화 대중소합 200부, 청채화 중소합 10죽	200개, 100개
항	청채화 대중항 25죽, 청채 篆字항 대중소 25죽, 청채화 小三缸 5죽	550개
병	청채화 대중병 10죽, 청채화 소병 2죽	120개
술가락	畫沙匙 200죽	2000개
다관	청채화 다관 10죽	100개
미상	청채篆字 5盒20部, 청채화 盒5盒30部	100개 (5합20부/*5합의 개별수량은 5개), 150개 (5합30부/*5합의 개별수량은 5개임)
	도합 1,300죽, 5합 150부, 3합 50부 (*원문의 합산은 착오임, 실제 수량은 387죽+200부+5합 60부+3합 60부임)	총 4,550개

모두 청화백자이고 청화백자의 표기를 ‘靑彩’, ‘靑彩畫’, ‘畫’ 등으로 다양하게 하였다. 문양은 전서체로 수복문자를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이며, 그밖에 문양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다른 19세기

왕실 혼례 관련 사기발기에서도 볼 수 있어 당시 전자(篆字) 수복자문은 왕실 백자 문양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 같다.⁵⁷⁾ 특기할만한 것은 완의 경우 청채篆字大磁碗이 '3盒 50部'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3盒'은 발우(鉢盂)와 같이 크기를 달리하여 층층이 포개지는 3개들이 형태를 의미한다.⁵⁸⁾ 청채篆字小磁碗의 경우도 3盒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층층의 형태는 대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채화흙대접篆字5盒10部'가 그것으로 5개들이(5盒)이다. 특별히 '합대접'이라는 명칭은 대접이 합과 같이 포개어진다는 의미에서 앞에 '盒'자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흙대접으로는 구연에 전이 달린 예를 볼 수 있으며, 질 또한 양질이다(그림 19). 기종 미상의 경우에도 청채篆字와 청채를 시문한 5盒이 있어, 19세기에는 층층의 그릇이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57) 청채篆字 수복자문이 중요하게 취급된 정황은 사기발기 이외에 『분원자기공소절목』에서도 볼 수 있다. 즉 「器皿定價式秩」의 '內出別燔器皿貢價'를 보면 별번 가격을 크게 반상기, 청화, 백자제기, 예번 등으로 범주화하여 명시하고, 청화는 다시 청채篆字, 청채화文器, 청채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청채화문기에는 발·대접·탕기·접시 등의 일상기명을, 청채화에는 합·병·항·다구 등을 적고 있으나 청채화문기와 청채화는 모두 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에 큰 의미는 없다(이유는 본고 <표 8-a> 참조). 청채篆字의 기종은 발·대접 뿐으로 청채화문기의 발·대접과 비교하면 같은 대·중 크기라 해도 청채篆字가 필사된 기종이 사이즈가 더 크고 가격도 비싸다. 청채篆字 기명의 개당 가격은 수량이 많은 반상기를 제외하고는 진상되는 그릇 중 가장 비싸 청채篆字 수복자문은 양질 백자에 왕실의 기호를 적극 반영한 문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8) 구혜인, 「分院貢所期(1883-1895) 왕실용 백자의 유통체계와 진상용 백자의 성격-『分院貢所節目』과 『荷齋日記』의 비교분석을 통해-, 『근대도자 시대를 공유하다』, 천안박물관, 2016, 76~77쪽.

59) 『分院磁器貢所節目』에 '靑彩畫五盒'과 '靑彩畫三盒'의 가격이 비교적 고가로 책정되어 있고, 『하계일기』에는 오합접시를 화분 받침으로 사용하거나, 지규식이 '五盒砂椀二部'를 서울로 올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층층 그릇이 늦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원자기공소절목』, 「器皿定價式秩」, '內出別燔器皿貢價'; 池圭植 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編著, 『國譯 荷齋日記』1, 2005, 252쪽; 同著, 『國譯 荷齋日記』6, 2009, 145쪽.



<그림 19> <백자청화울문대접>, 19세기, 고 3.7-9.4cm, 구경 8.6-18.2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0> <백자청화모란문양념단지>, 19세기, 고 8.4cm, 구경 4.0-4.4cm, 이화여대박물관

항아리에는 ‘소삼항(小三缸)’이라는 명칭도 보이는데, 이것은 작은 항아리 3개가 부착된 양념 단지로 『분원자기공소절목(分院磁器貢所節目)』에는 이러한 형태를 ‘삼부항(三付缸)’으로 명명하였다(그림 20).⁶⁰⁾ 이와 동일 형태의 항아리가 백자뿐 아니라 옹기로도 제작되었으며, 백자로 4개가 부착된 예도 전하는데 이러한 항아리를 절목에서는 ‘사부항(四付缸)’이라 칭하였다. 수량 단위는 ‘죽(竹)’을 사용하였으나, 합이나 중층으로 포개어지는 그릇들과 같이 부피가 있는 것들은 ‘부(部)’를 사용하였다.

원문에서는 자료의 수량을 1,300죽+5합 150부+3합 50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87죽+200부+5합 60부+3합 60부(총 4,550개)이어서 계산에 착오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왕실 혼례에서 의례용도로 사용되었던 다관의 사용

60) 『分院磁器貢所節目』, 『器皿定價式秩』, ‘內出別燻器皿貢價’ 참조.

도 확인할 수 있다.

<표 8-d> 기증에 따른 분류 : 禮器

기종	내용	수량
사발	대중 사발 100족	1000개
대접	대중소 대접 100족	1000개
탕기	탕기 대중 100족	1000개
보아	보아 대중 100족	1000개
접시	접시 대중 100족	1000개
	도합 500족	총 5,000개

순종 가례 때 작성된 사기발기 가운데 유일하게 제목이 달려있는 자료이다. 현재 ‘禮器’는 다른 발기에서는 ‘예기’ 혹은 ‘預器’로도 표기되어 있어⁶¹⁾ 誤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에 ‘禮器’의 의미였다면 19세기의 한글 표기는 ‘예기’가 아닌 ‘네기’로 표기되어야 하므로⁶²⁾ 여기서의 ‘禮器’는 ‘預器’의 오기(誤記)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豫器는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여유분의 그릇으로 볼 수 있다. 예기로 발·대접·탕기·보아·접시 등을 각각 100족씩 모두 500족을 준비하였고, 예기의 존재를 통해서 왕실 행사 때 그릇의 공급 체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같이 순종 사기발기인 「가례시사기발기임오이월(嘉禮時砂器件記壬午二月)」의 전체 내용(a~d)을 종합해 보면 총 수량은 49,590개로 5만 개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이다. 이처럼 임오가례에는 많은 양의 자기 뿐 아니라 500채가 넘는 비단 금침(衾枕)이 소용되는 등 규모가 컸는데, 이는 모후인

61)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39쪽, 359쪽.

62) 이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황문환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명성황후의 등등했던 세력의 영향도 있겠으나 2대의 양자(養子) 끝에 모처럼의 왕세자 가례이었기 때문이다.⁶³⁾ 이 중 청화백자는 27,720개로 전체 수량에 55%를 차지하여 청화백자의 비중이 백자 보다 다소 높다. 또한 별번품은 모두 백자로 15,000점에 이르며, 전체 수량에 약 30%를 차지한다. 이것은 1년에 진상하는 연례원진상(年例元進上)자기의 수 1,372족 보다는 많아, 별번진상의 규모가 원진상 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순종 혼례에는 많은 자기가 소용되었으나, 1844년 헌종 가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헌종 가례 시 내자시(內資寺) 반사기계(盤沙器契) 공인(貢人)이 진배한 자기의 수가 무려 만(萬) 여죽에 이르기 때문이다.⁶⁴⁾ 시전구입 수량만 10만개로 순종 사기발기 수량에 2배에 달한다. 이것은 공인이 시전에서 구입하여 진배한 숫자로 분원에서 별번을 비롯한 진상자기의 숫자까지 모두 합친다면 엄청난 숫자가 소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수량의 차이는 왕의 신분인 헌종과 왕세자 신분인 순종의 지위를 자기의 수량으로써 차별한 것이라 사료된다. 순종 가례에 사용된 기종은 발·대접·탕기·조치기·보아·접시·종자·완·합·항·병·다관·순가락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가장 많은 수를 보이는 기종은 접시와 종자로, 이러한 양상은 반상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발·대접·탕기·조치기·보아의 수는 거의 1개씩인데 반해 접수를 결정짓는 접시와 종자는 한 상에 여러 개씩 놓이기 때문이다. 그릇을 세는 단위도 부피가 큰 합과 중층의 완·대접은 ‘부(部)’를, 반상의 경우는 ‘건(件)’을 나머지 기종은 모두 ‘죽(竹)’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현재 알 수 있는 것이 壽福字, 百壽福字, 篆字 정도이며, 篆字 역시 수복자를 전서체로 필사한 것이어서 당시 수복문자의 애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복자문 이외의 문양에 대해서는 ‘靑彩’, ‘靑彩畵’, ‘靑彩紋器’라고만

63) 金用淑, 앞의 책, 1987, 200쪽.

64) 『備邊司謄錄』 231冊, 憲宗 10年 2月 13日條. “...內資寺 盤沙器契 貢人이 자기 萬 여죽을 왕실에 진배하였다...”.

할 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끝으로 순종의 사기발기인 「가례시사기발기임오이월(嘉禮時砂器件記壬午二月)」(1882)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예가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신사이월가례시사기발기(辛巳二月嘉禮時砂器件器)」로⁶⁵⁾ 그릇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표기나 어순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辛巳년(1821 혹은 1881) 2月에는 왕실의 가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辛巳二月’은 ‘壬午二月’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따라서 「신사이월가례시사기발기(辛巳二月嘉禮時砂器件器)」는 「가례시사기발기임오이월(嘉禮時砂器件記壬午二月)」의 이본(異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계스길례시사기명불기」

이 자료는 1893년 의친왕(義親王, 1877~1955) 혼례에⁶⁶⁾ 소용되었던 사기의 목록과 수량을 적은 기록이다. 원문은 궁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a,b) 이루어져 있다. 일부 판독의 어려움이 있으며, 내용 이해를 위해 원문 옆에 한자를 병기하였다.⁶⁷⁾ 각 부분의 내용을 기종별로 정리하면

65)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53~354쪽.

66) 『高宗實錄』卷 30, 高宗 30年 10月 29日.

67)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39쪽. 器皿 18-1, 18-2.

- a. 청치화반상오건(靑彩畫盤床五件), 수복주반상오건(壽福主盤床五件), 빅별반상십오건(白別盤床十五件-사발일개구(砂鉢一蓋具), 탕기일개구(湯器一蓋具), 대접일(大接一), 텃치기일개구 (沈菜器一蓋具), 조치기일개구(助齒器一蓋具), 접시칠개구(接匙七蓋具), 종자삼개구(鍾子三蓋具)), 청치화대등사발십오독(靑彩畫大中砂鉢十五竹), 청치화대등소탕기십오독(靑彩畫大中小湯器十五竹), 청치화대등대접십오독(靑彩畫大中大接十五竹), 청치화대등보오십오독(靑彩畫大中甫兒十五竹), 청치화대등조치기십오독(靑彩畫大中助齒器十五竹), 청치화대등소접시사십오독(靑彩畫大中少接匙四十五竹), 청치화대등종자사십독(靑彩畫大中鍾子四十竹), 합일빅늑십독(合一百六十竹).

b. 예기

다음의 <표 9-a, b>와 같다.

<표 9-a> 기준에 따른 분류

기종	내용	수량
반상	청채화반상 5건, 수복자반상 5건, 白別반상 15건(사발1·탕기1·대접1·침채기1·조치기1·접시7·종자3(대접 제외한 나머지 모두 뚜껑 갖춤))	25건×15개=375개 (*반상 1건의 수량은 15개로 계산함)
사발	청채화 대중 사발 15죽	150개
탕기	청채화 대중소 탕기 15죽	150개
대접	청채화 대중 대접 15죽	150개
보아	청채화 대중 보아 15죽	150개
조치기	청채화 대중 조치기 15죽	150개
접시	청채화 대중소 접시 45죽	450개
종자	청채화 대중 종자 40죽	400개
	합 160죽 (*원문의 160죽은 반상 제외한 사발~종자까지 수량임)	1,600개
		반상 375개+1,600개 =총 1,975개

전체 수량 1,975개 중 백자 별번 반상 225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청화백자

사발십죽(砂鉢十竹), 대접십죽(大接十竹), 대탕기십죽(大湯器十竹), 대등보오 십죽(大中等兒十竹), 등소접시삼십죽(中小接匙三十竹), 청치던즈대사발일죽(靑彩篆字大砂鉢一竹), 청치던즈대대접일죽(靑彩篆字大大接一竹), 청치화던즈대등소합삼죽(靑彩畫篆字大中小盒三竹), 청치화던즈대등소합칠죽(靑彩畫篆字大中小缸七竹), 청치화병대등소일죽(靑彩畫瓶大中小一竹), 청치화삼등항일죽(靑彩畫三中缸一竹), 화통합일죽(畫筒盒一竹), 청치화스시오죽(靑彩畫砂匙五竹), 도합이빅오십죽(도합 250죽).

이며, 문양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수복자문이다. 백자 별번 반상은 7첩으로 발·탕기·대접·침채기·조치기·접시·종자의 구성이며 대접은 뚜껑이 없고, 김치 용도의 보아는 침채기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왕세자 신분이었던 순종 가례 때의 백자 별번 반상이 110건인데 반해 의친왕의 경우 15건이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신분에 따른 차등을 그릇의 수량으로써 가시화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상 이외에 그릇들을 보면 역시 접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종자의 수량이 많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반상 구성에서 접시와 종자의 수량이 많음과 연관이 있다.

<표 9-b> 기종에 따른 분류 : 예기

기종	내용	수량
발	사발 10족, 청채 篆字 대사발 1족	110개
대접	대접 10족, 청채 篆字 대대접 1족	110개
탕기	백자 대 10족	100개
보아	백자 대중 10족	100개
접시	백자 중소 30족	300개
합	청채화 篆字 대중소 합 3족, 畫筒盒 1족	40개
항	청채화 篆字 대중소 항 7족, 청채화 三中缸 1족	80개
병	청채화병 대중소 1족	10개
술가락	청채화 沙匙 5족	50개
	도합 250족 (*b만은 90족이나 위의 a의 160족을 합하여 원문에서는 250족으로 명시한듯)	900개

예기(豫器)는 미리 준비해두는 여유분으로 90족 즉 900개가 소용되었다.


순종의 사기발기인 「가례시사기발기임오이월(嘉禮時砂器件記壬午二月)」에 서는 예기가 모두 백자인데 반해 의친왕의 사기발기는 청화백자도 있다. 청화백자를 표현하는 용어로 ‘청채’, ‘청채화’, ‘畵’ 등이 사용되었다. 알 수 있는 문양은 전서체의 수복문자로, 문양으로서 위상이 컸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역시 접시로 발대접·탕기와 같은 일상기명에 3배에 달한다. 그리고 ‘삼중항(三中缸)’은 항아리가 세 개 붙어있는 중형의 삼부항(三付缸)으로 추정되며, ‘畵筒盒’의 내용으로 보아 청화로 만든 원통형태의 합이 19세기 4/4분기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덩미가례시일기』에 기재된 화사시(畵沙匙)가 의친왕 혼례에도 사용되어 19세기 내내 화사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의친왕 사기발기 a, b의 백자 수량은 총 2,875개이다. 앞의 순종 사기발기의 수량 49,590개와 비교하면 큰 차이 있다. 물론 현전하는 순종과 의친왕 사기발기가 전부가 아니고 전하지 않는 사기발기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기발기의 반상 부분은 발기의 맨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어 누락되는 내용 없이 전모를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반상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순종 가례의 반상 수량(200건)과 의친왕 길례의 반상기 수량(25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7첩반상이나 순종의 반상에는 첩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가 2개이고 의친왕의 경우는 1개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상에 다관이 포함되지 않으나 순종의 반상에는 다관이 있고, 의친왕의 경우에는 없는 데, 이러한 일련의 차이는 왕실 지위에 따라 소용 백자의 수량에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왕실 의례가 주인공의 위계에 따라 차등체감(差等遞減)하는 현상은 비단 발기 뿐 아니라 국혼에 관한 정식을 적은 『국혼정례(國婚定例)』나 『원행음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의 찬품·기용조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⁶⁸⁾

68) 『국역 국혼정례』, 국학자료원, 2007 참조; 『원행음묘정리의궤』, 수원시, 1996, 317~

IV. 맺음말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유교의 예에 입각한 혼례의 육례 절차 배경 가운데서 사용되었다. 혼례에 실제로 사용된 백자 역시 주인공의 지위에 따라 수량과 종류에 차이를 보였으나, 백자의 질은 모두가 양질로 균일하여 왕비·후궁·공주 소용에 차이를 살펴볼 수 없다.

발기 및 일기 등의 분석을 통해서도 왕실 혼례용 백자의 다양한 특징과 사실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발기가 혼례에 소용된 모든 사기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윤곽과 규모의 파악을 가능케 하였다. 우선 혼례에 사용된 기종은 발·완·접시·대접·탕기·보아·종자·조치가·항·호·준·합·병·반상·다관·화사시 등이며, 전체에서 청화백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5%이어서 무문백자의 비중 또한 적지 않다. 청화백자 문양은 수복문자만을 명시하고 나머지 문양은 ‘畵’·‘靑畵’·‘靑彩畵’·‘靑彩’·‘靑彩紋器’로만 표기하여 수복문자에 대한 애호를 알 수 있으며, 현전 유물에 모란·불수·국화·당초·『』 등도 있어 다양한 문양이 왕실 혼례용 백자에 시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19세기 왕실 혼례에 공공연히 수입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唐畵瓶·唐沙盒·唐畵茶捧), 반상·대접·접시·종자 등은 중국·일본의 백자·청화백자에 금채나 금선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시전 자기 구입 사실을 통해 자기의 진상이 분원과 시전의 이원 체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해 놓는 예기(豫器)의 존재를 통해서도 왕실 행사에서 자기의 공급 체계의 일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연엽접시’·‘굽접시’·‘소삼항(小三缸)’·‘삼중항(三中缸)’·‘통항(筒缸)’ 등의 기록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전통 도자 명칭을 시사해주었으며,

408쪽. 『국역 국혼정례』에서는 왕실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주인공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시하였고,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도 왕실의 지위에 따라 반찬과 사용하는 그릇의 수를 차등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왕실 혼례의 반상규모(7첩), 중층자기, 크기분류(小小)나 수량단위(立·箇·竹·部·件)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왕실 혼례용 백자의 사용(용도·장소)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백자는 정확하게는 동퇴연이 아닌 동퇴연에 이어지는 피로연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신부의 거처에서 혼수품으로도 이용되었다. 현전하는 혼례용 백자 명문을 통해서는 ‘정미가례시순화궁고간..’의 ‘순화궁고간’이 경빈김씨의 거처인 ‘낙선재고간’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간지+가례시+큰던고간+이뉴..’의 명문에 나타난 ‘큰던’은 동퇴연이 치러지는 전각임을 밝히고 그 구체적 장소 또한 규명하였다.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는 유교의 예에 입각한 육례 절차라는 배경 가운데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동시에 조선왕실 의례용 백자의 한 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誌』
『慶嬪嘉禮膳錄』 (귀K2-2614)
『高宗明成皇后嘉禮都監儀軌』 (K2-2599)
『덩미가례시일기』 (장K2-2708)
「덩유똥추길례시」
『分院磁器貢所節目』 (古4256-11)
『원행을묘정리의궤』
『林園十六誌』
『경미가례시일기』 (장K2-2709)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 (규27008)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 (규13139)
『憲宗孝定后嘉禮都監儀軌』 (K2-2597)
- 『古文書集成十三』-藏書閣篇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광주 분원리요 청화백자』, 이화여대박물관, 1994.
구혜인, 「分院貢所期(1883-1895) 왕실용 백자의 유통체계와 진상용 백자의 성격- 『分院貢所節目』과 『荷齋日記』의 비교분석을 통해-」, 『근대도자 시대를 공유하다』, 천안박물관, 2016.
_____,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
『국역 국혼정례』, 국학자료원, 2007.
『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국립고궁박물관, 2017.
김기혜, 「조선 후기 크락(Kraak)양식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8.
김문식, 「1823년 명은공주의 가례절차」, 『조선시대사학보』 56, 2011. 3.
김미경, 「19世紀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講座美術史』 33, 2009. 12.

- 김은경, 「朝鮮後期 淸 陶瓷의 受容과 認識 變化」, 『한국학연구』 66, 2018. 9.
- _____, 「朝鮮의 淸 瑠璃瓷器 유입경로와 수용태도 연구」, 『美術史學』 37, 2019. 2.
-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 일지사, 1987.
- 이 옥,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장서각』 19, 2008, 6.
- _____, 「해제 『덕은공주가례등록』과 덕은공주 혼례 절차」, 『국역 덕은공주가례등록』, 국립고궁박물관, 2017.
- _____,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 절차와 의미-1882년 王世子 嘉禮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8, 2016. 2.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새로문화, 2007.
-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2.
- 정다혜, 「朝鮮 18-20世紀 白磁 高足樑匙(고족접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8.
- 『조선백자 향아리』, 이화여대박물관, 1985.
- 조선총독부 編, 『조선고적도보』 15권, 2005.
-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국립중앙박물관, 2014.
- 지규식 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編著, 『국역 하재일기』 1-6, 2005, 2009.
-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論壇』 29, 2009. 하반기.
- _____, 「景福宮 출토 19세기 백자의 제작상 특징 및 의미 -燒廚房址, 興福殿址, 威和堂 緝敬堂 行閣址를 중심으로」, 『美術史學報』 40, 2013. 6.
- _____,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 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
- _____, 「분원리 1호요지 가마2호 발굴의 양상 및 의의-상부퇴적 및 바닥내 출토품을 중심으로-」, 『陶藝研究』 25, 2016. 12.
- 최준수, 「朝鮮 後期 茶文化과 白磁 茶具 研究」,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

혜경궁 홍씨 지음, 이선형 옮김, 『한중록 : 내 붓을 들어 한의 세월을 적는다』, 서해문집, 2003.

황문환 외,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_____,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한글 자료에 대하여」, 『韓國復飾』 30, 2012. 5.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씀, 『동국세시기』, 도서출판 풀빛, 2009.

『1837년 가을 어느 혼례날 덕온공주 한글자료』, 국립한글박물관, 2016.

家田淳一, 「朝鮮へ輸出された江戸時代の肥前・對州磁器」, 『財團法人鍋島報效會研究助成研究報告書』 2, 2006. 1.

_____, 「韓國出土の近世日本磁器」, 『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調査研究報告書』, 2006. 3.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柴田コレクション』Ⅳ -古伊万里様式の成立と展開, 1995.

_____, 『柴田コレクション』Ⅵ -江戸の技術と裝飾技法, 1998.

_____, 『柴田コレクション總目錄』, 2003.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WHITE PORCELAIN FOR THE JOSEON ROYAL FAMILY
WEDDING IN 19C

CHOI KYUNGHWA (CHOI, KYUNG HWA)

The royal wedding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Royal Festival, and was one of the biggest national events of Joseon era Korea. However, no systematic inquiry was made regarding the white porcelain used in the momentous royal wedding; researchers' attention was solely focused on a few of the more well-known white porcelains. One could understand the era, of whose wedding the porcelain was used, by looking at the Jeongakmyeong (點刻銘, letters engraved in the white porcelain with dots). One could also grasp the design and the technical features by looking at the porcelain's external appearance.

However, this is just a fragmentary perception of the white porcelain used in the royal weddi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orcelains used in the royal weddings based on the Joseon dynasty's ritual, Rye (禮 : Confucianism, based on courtesy), as well as by assimilating other various factors, excluding design and technique.

Analyzing the 19th century's Garyedogamuigwe (가례도감의궤, the book containing the record of the royal weddings), the white porcelain used in the royal wedding is based on Confucianism's Rye, and distinguishes

the status of each wedding by differentiating the procedures of each. Also, according to the Sagibalgi (사기발기), the book containing the list of the porcelains used in the Royal Festival), we can see the quantity, form, official name designation, design, and the sizing system of the porcelains, as well as how the king and royals were treated and viewed. Moreover, various and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use of the imported porcelain and the preferred forms can be found in Sagibalgi, which became the method to analyze the white porcelain, we are able to see that Confucianism's Rye, which is the basis of the royal ritual, is expressed through various aspects in ceramics. At the same time, it is meaningful to perceive on side of the white porcelains used in royal rituals in Joseon, and be able to find its significance.

Key Words : 19C, royal family wedding, white porcelain for wedding, royal family ceremony, Sagi-Balgi, literary rule by rites